

# 올해 인터넷 이용자 1천만명 돌파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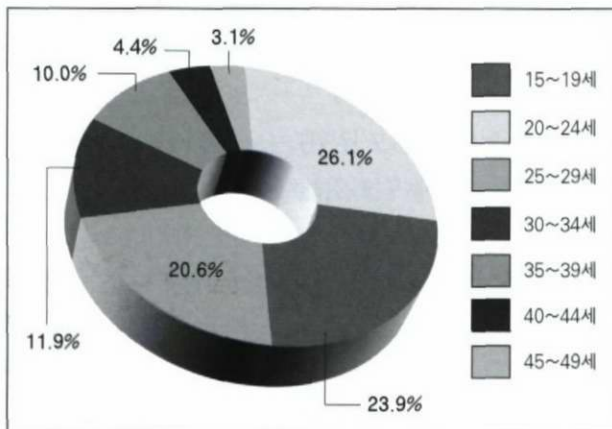
올해 하반기에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1천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. 인터넷 리서치 전문기관인 인터넷 메트릭스(대표 이상경)는 지난해 6월과 11월 실시한 '인터넷 센서스' 를 토대로 2000년 말 국내 인터넷 인구가 1,100만명에 이르고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에는 전체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. <편집자>



터넷 마케팅 전문기관인 인터넷 메트릭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15~49세 인구의 21.8%인 약 571만명으로 추정되어 지난해 1차 인터넷 센서스조사 이후 불과 5개월 사이에 8.1%(약 211만명)나 증가했다고 밝혔다. 특히 여성 이용자의 수가 약 97만명에서 약 192만명으로 크게 늘어 인터넷 이용자 구성이 남성 66.3%, 여성 33.7%로 미국, 유럽 등 선진국이 겪어온 인터넷 인구 구성비 변화과정을 따르고 있다.

이용 연령층 역시 20~30대 초반이 60.9%에서 58.6%로 다소 감소하면서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 양상을 반영하였는데, 이는 전체 이용자의 29.5%를 차지하는 신규 가입자(인터넷 이용 6개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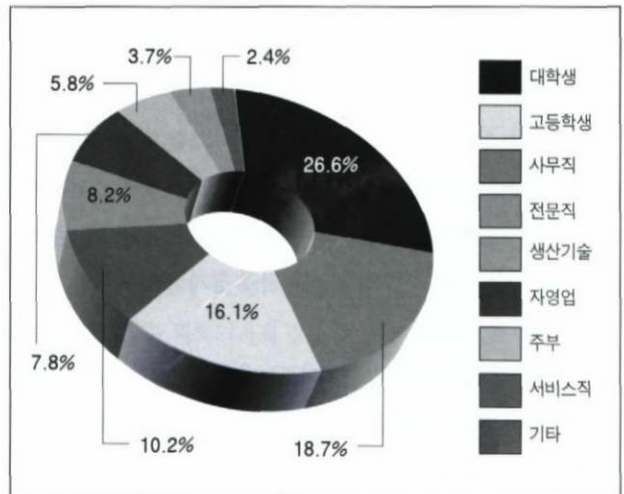
<표 1> 인터넷 이용자 연령별 구성비



미만)들 중 15~19세와 30대 이후의 연령층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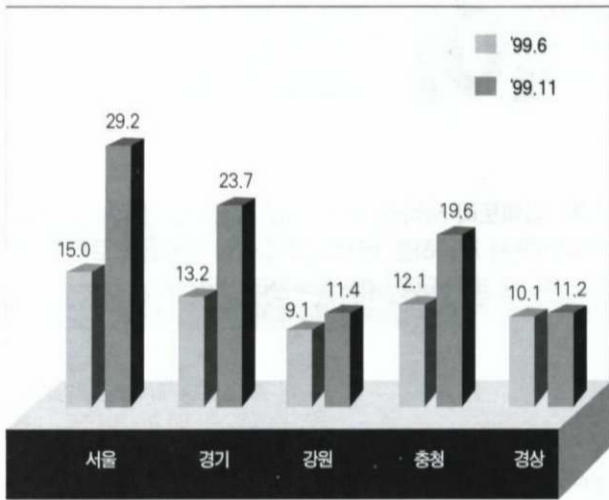
직업별 분포에서도 대학(원)생, 사무직 이용자가 각각 26.6%, 18.7%로 지난해 6월과 같은 수준이고, 생산기술직과 전문직 등 타 직종에서 오히려 감소한데 비해 고교생과 주부 이용자의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.

<표 2> 인터넷 이용자 직업별 구성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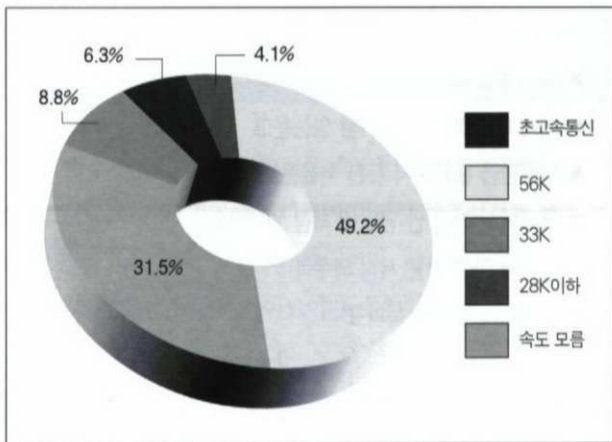
지역별로는 서울, 경기, 충청지역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반면 강원, 경상지역의 증가율은 1~2% 정도에 그치고 있어 지역간의 정보화 불균형을 드러냈다.

〈표 3〉 지역별 인터넷 이용률



인터넷 이용시간도 주 8.6시간(하루 1시간 14분)에서 10.1시간(하루 1시간 27분)으로 늘어났다. 인터넷을 접속할 때 초고속 통신을 이용하는 비율은 6.3%였으나, 앞으로 초고속통신으로 바뀔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40.4%로 향후 초고속통신의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.

〈표 4〉 인터넷 접속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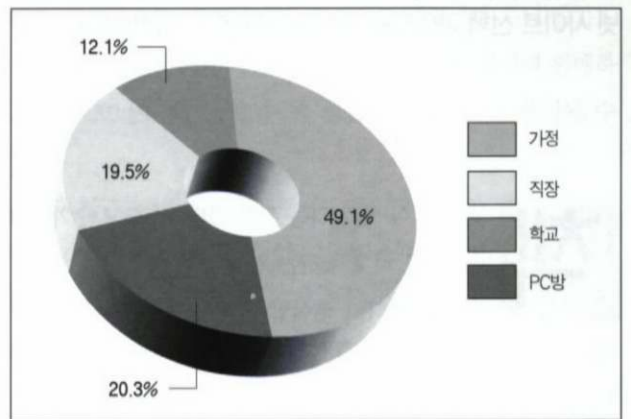


한편,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 비중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주 이용장소가 PC방인 이용자가 지난 6월의 11.8%(42만명)에서 20.3%(116만명)로 증가했다. 또한 상대적으로 직장 과 학교에서 이용하는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이다.

인터넷의 주방문 사이트는 학술정보, 오락/게임, 업무관련, 뉴스, 동호회/채팅, 스포츠/연예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,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검색엔진을 통해 새로운 웹사이트를 찾아가고 있었다.

인터넷 쇼핑에 대해서는 구매 경험률은 8%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고, 전문직과 주부의 구매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, 구입품은 주로 서적, 영화티켓, CD 등 소액단품이 주종을 이루었고, 인터넷 쇼핑 거래의 이유로는 물건 탐색이 용이하다는 점을 꼽았다.

〈표 5〉 인터넷 이용장소



인터넷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사이버 주식거래자의 비율은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9.5%였는데, 특히 주부 네티즌의 4명중 1명(24.4%)은 사이버 주식거래를 하고 있어서 자영업자(20.1%)나 사무직(16.2%)보다도 사이버 주식거래를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지난 6개월간 인터넷 쇼핑 이용율은 전체 네티즌의 7.9%로 아직 미미했으나, 전문직(14.0%)과 주부(12.6%)의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. 자세한 사항은 <http://www.imx.co.kr>에서 볼 수 있다.